

경제

금호타이어 노조 또 파업 선언

조업 정상화 40일 만에 ... 3월 파업 후폭풍 징계·가압류 등 갈등

내일 노사 전체회의 결과 주목

금호타이어가 파업 후폭풍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9일 오후 광주공장 복직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행위 불임을 선언했다. 지난 3월 31일 강준태 광주시장의 중재로 노사합의를 이뤄 조업을 정상화한 지 40일 만에 파업 후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노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31 합의 이후 노사가 11차례 실무 대화와 2차례 대표 면담을 했지만 사측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리터 사측은 대화 진행 중에 230여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해고·징계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정의행위 결정은 김중호 사장 등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 노조와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노조가 사측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정의대책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의행위를 통해 투쟁을 결정했다. 파업 시기와 방법, 투쟁수위 등은 정의대책위원장에

게 위임하기로 했다.

정의대책위는 투쟁지침을 통해 이날 오전부터 전 조합원은 사측이 실시하는 집회 및 교육을 거부하는 한편 식사 교대 및 휴·연근(특근)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제8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전 조합원 비상연락망 구축 ▲각 공장 소위원 및 선봉대 구성 ▲협상 결렬 때 정의대책위원회 소집 등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소송과 징계, 지난해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대화

하는 마당에 정의행위를 선언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선택”이라며 “그동안 대화를 통해 견해차도 좁혀지고 있으나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또다시 불법행위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1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노조의 정의행위와 관련해 사측은 광주와 곡성공장 노조원 17명을 해고 결정하고 5명은 징직, 4명은 감봉 또는 경고조치 했다. 또 17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중이며, 이에 따라 일부 노조 간부의 은행 통장이 가압류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자승 “스마트폰 삼매경”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9일 오전 아기 스님들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내 체험형 ICT 전시관 ‘T.um(티움)’을 방문, 3D TV 및 스마트폰, 스마트 카드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지경부, 아파트형 공장·비제조업 부지 건축 기준 7월부터 대폭 강화

산업단지 내 ‘땅투기’를 막고 그 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 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단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법)’이 7월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인정

돼 지분 매각 시 분할 제한(1천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2, 3층이 터무니 없이 작은 형식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지분을 잘게 쪼개 팔아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된 다른 업체에 넘기지는 않은 경우,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제조업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산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이 3~20%로 낮게 설정돼 있지만 비제조업은 앞으로 최고 40%의 면적률을 적용받겠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새 일꾼

“경력인증제 정착에 힘쓰겠다”

윤경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재선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을 행겨나가는 ‘실무형 회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재선된 윤경도(63) 회장은 “세무사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 정착과 임금피크제 공감대 형성, 업무취해행위 감시 체계 강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역점사업인 회관 건

립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질·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경영학과(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 과장을 거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항공사, 요금 더 받는 ‘성수기’ 기습 연장

평일 ‘샌드위치 데이’ 늘자 76일로

올해 휴일과 휴일 사이의 평일인 ‘샌드위치 데이’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각각 57일이었던 성수기 기간을 올해에는 19일씩 늘린 76일로 지정했다.

이는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연휴 등을 성수기에 포함

시킨 결과다. 이에 따라 성수기가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도 작년보다 약 3주가 늘어난 셈이 됐다.

대한항공의 김포~제주 편도요금은 주말 기본요금(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제외) 기준으로 8만4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2900원으로 10% 오른다. 성수기 연장이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연합뉴스

한편 여름휴가철 성수기도 작년 38일에서 올해 44일로 늘린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 연장은 요금 차별화를 통해 특정기간에 몰리는 과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의 윤철환 국장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며 “비수기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서 어떻게든 돈을 더 챙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와이파이 공동구축 지역에서는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는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설치 장소, 비용,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공시설에 대한 와이파이 공동구축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공공시설 와이파이 공유 추진

이통3사 공동 구축

관공서나 공항 등 공공시설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와이파이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통업계는 우선 시정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공항, 철도역 등 공공시설에 공동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안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통신업체별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중박 설치를 방지함으로써 각사별 와이파이가 혼신을 막고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와이파이 설치 개수를 앞세운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는데 따른 업계의 자성도 한몫

‘일석e조보험’ 인기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가 올해 초 도입한 ‘일석e조보험’이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회수위험 회피를 위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을 이용,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보험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예로 사할인 납품대금을 떼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매출채권을 이용, 납품대금을 조기에 은행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효과 때문이다.

실제 광주 하남공단에 위치한 기계제조업체 A기업은 최근 거래처 결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거래처 부도에 의한 납품대금 회수불능 고민과 함께 운전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했으나 일석e조보험 덕분에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호남본부는 올해 호남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5200억원 및 일석e조보험 1000억원 수준의 보험인수를 계획하고 있다. 또 4월 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1800억원, 일석e조 보험 380억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얼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원문부지, 생활주택 적합 백운동 로타리에서 무진중학교 가는 길 2중 거주지 256평 감정 5억5천 매도 3억9천
- 교회건물, 구시청(이마트)앞 대지 71건 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9천 대용도 사용 4억6천만원
- 유동 모텔 대지 133 건평 306 요양시설적합 6억천
- 유촌동 땅 1632평 청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방동 484평 대출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면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청고·공장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금남로4가 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는 공시지가 87억 5천 매도 35억
- 광주역앞 원문 대지108 건평383 감정1억9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주유소 화순읍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9천 매도15억5천
- 동림동 이마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억6천
- 롯데백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맨션 옆 2중거주지 220평 생활·빌라적합 2억7천
- 하남공단 도전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9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기자,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비어동 3층상가 대지73평 건평131평 농가시설 감정가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단독주택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감정가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전원주택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근린주택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감정가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다가구	· 서구 화정동 3층 대지63평 건평105평 감정가 3억 2천만 최저가 2억 2천만

광주 서구 마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 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2,486.5㎡(752평), 공장1,120㎡ (338평).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500만원.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자연녹지

- 서구 매월동 서공구역 앞 전, 2,590㎡(783평), 3.3㎡당 98만원.
- 광산구 산월동 호촌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 임,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합,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 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담.임야

- ☆.차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점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 ☆.임촌동 정차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 ☆.광산구 옥동(명동)주거지역 담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담279㎡ 매매가 4,200만원
- ☆.장성면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무인모텔

- ☆.광산구 우산동 무인모텔 대183평 건500평 객실 32개 매매가 15억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